

청년창업 든든한 파트너 '익산'

SKE&S와 손잡고 지원사업 추진... 창업 자금 최대 4000만원 제공

익산시가 SK E&S와 손잡고 익산 지역 청년창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된다.

시는 오는 3월 7일까지 올해 새롭게 준비한 청년창업 지원 시책인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익산시와 SK E&S간 민관협력 사업으로 사업화 가능한 창업아이템 및 익산시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시제품 제작, 마케팅, 재료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4,000만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24주치의 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 시



책이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청년 대표자이며,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20명의 청년 창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신청은 3월 7일 오후 5시까지 익산청년센터 청수에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를 비롯한 사업계획서 양식은 익산시 홈페이지와 익산청년센터 청수 공지사항에 있는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병두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익산시가 지역 기업과 손잡고 지역특화 산업 및 기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발굴을 통해 청년 기술창업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익산=이특훈 기자



군산시는 지난달 21일 옥산면을 시작으로 지역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2022 임인년 읍면동 연두순시'가 대야면을 끝으로 모든 일정 이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민과의 약속 완성의 시간

군산시, 2022 임인년 읍면동 연두순시 마무리

군산시는 지난달 21일 옥산면을 시작으로 지역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2022 임인년 읍면동 연두순시'가 대야면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두순시는 49명 이내 주민대표 참석, 출입자 QR코드 등록,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시민들의 다양한 시정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현안 사업을 해당 부서장이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설명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이번 연두순시로 제한된 시간에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모두 설명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다음 지난해 비대면으로 치러진 연두순시보다는 현장에서 건의사항도 경청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한층 높였다.

강 시장은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법 저촉 우려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설명과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매우 크지만, 코로나로 인해 시 민과의 대면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연두순시로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됐다"며 "연두 순시에서 청취한 의견은 물론 다양한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연두순시에서 건의된 96건의 읍면동별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 사업 필요성, 시 재정여건 등을 관계 부서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백신 방문 접종 접종률 '향상'

익산시는 거동이 불편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위한 방문 접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도입된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관내 요양시설 입소자와 재가노인·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18세 이상 미접종자 대상으로 방문 접종을 진행한다.

코로나19 백신을 1회도 받지 않은 미접종자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과 중증·사망 위험이 높으므로 대상자 특성화 맞춤형 접종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관내 요양시설·취약시설·노인 시설에 접종을 희망하는 거동이 불편한 미접종자를 조사했으며 15일과 16일에 이틀간 총 9개 시설에 방문해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이특훈 기자

익산시,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생 모집

익산시는 농업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농산물 가공 창업 인력 양성에 나선다.

시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에 걸쳐 '2022년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교육(기초반)'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 농가 30곳을 모집한다.

가공센터 이용에 관심 있는 시 거주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교육을 운영해 144명의 인적자원을 배출했다. 올해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농업인 대상으로 한 기초반과 가공센터를 이용 중인 창업농업인 대상 심화반 등 2개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심화반은 4월 중 모집 예정이다.

기초반은 농산물 가공사업 전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원리, 가공제품 개발, 창업 절차, 세무회계, 가공시설 구축 사례, 가공 실습 등의 내용으로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3회 교육을 진행하며 80% 이상 수강 시 수료가 인정된다. /익산=이특훈 기자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청년창업가' 모집

군산시, 임대주택 보증금·월 임대료 지원 사업 일한

군산시가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 창업 정착률을 높이고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1H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모집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만19세 ~ 만39세의 청

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3년미만 기창업자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거나 하며 이 사업은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 창업 정착률을 높이고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1H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인원은 14명이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만 하고,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가 타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창업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인 청년(예비)창업자들이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유망 청년 인재의 창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정책과(☎454-4338)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산북중(터널)~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본격 추진

군산시는 올해 계획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 발전 정책을 간대해온 지역에 대해 지난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24년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북중학교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사업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자해 총연장 1km 폭 15~23m까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과 터널을 개설할 방침이다.

지난 2021년 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실시계획 용역이 마무리됐으며, 2오는 3월 중 공사발주 의뢰해 5월경 1차분(부곡사거리~리츠프라자호텔)공사 착공 계획으로 2024년 12월까지 차량없이 도로개설 및 터널개설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산북동 4토지와 나운동 도상권을 연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도로와 터널 개설 시 주변지역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주민들이 두 지역을 오갈 때 공단대로 등을 이용해 왔으나 이터널이 개통되면 운행거리와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공단대로 교통량 분산으로 차량 흐름과 물류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사업은 생산 유발 효과 및 고용유발 효과 등을 발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면서 "완료되면 그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개발에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정주여건 개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정현을 시장, 송학초 인도 개설 민원 해소 나서

정현을 시장이 송학초등학교 인도 개설 요구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민원 해소에 나섰다.

정 시장은 14일 송학초 학부모 대표단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행정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송학초등학교 인도 개설 요청 구간은 길이 230m, 폭 3m로 총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우회 통학로가 개설되면 당초 약 1km였던 거리가 230m로 대폭 단축돼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

전한 등·하교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송학초등학교 인도 개설은 평화제일아파트, 클래식아파트, 평화제일오류아파트 등 인근 거주 초등학교 110여명 이상의 통학로 확보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거듭 개선이 요구돼 왔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현장 행정을 통해 "그동안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불편을 느꼈던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추진 될 수 있도록 민원을 기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특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